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자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28주일(10월 15일)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혼인잔치의 초대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마태22,10-12)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는데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물러갑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 하는 이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가진 바를 나눈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0. 12.)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돌



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마태 22,4)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마태 22,12)

주님께서 원하시는 혼인 예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에게나 신앙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그분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잔치의 예복은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아

무런 기쁨 없이 억지로 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삶이 멍에로 느껴진다면 ‘기쁨의 예복’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기만 하다면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쁨을 갖고 사는 인생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이 복음의 교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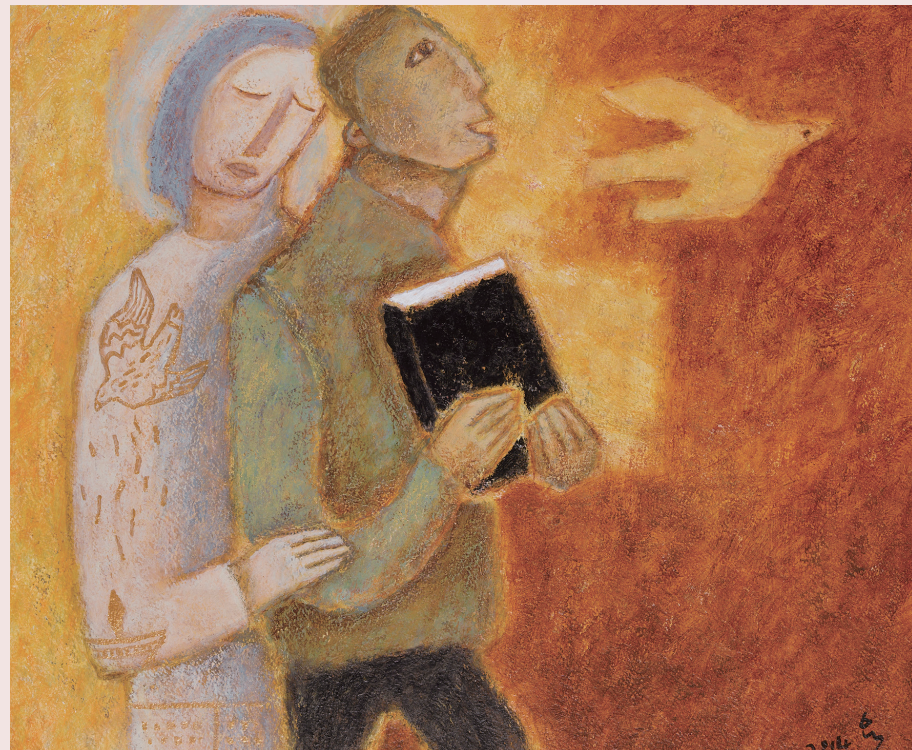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9주일(10월 22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6-20)



동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과 언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신앙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0.19.)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지금 내 안에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끝 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계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던 이들도 이제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확신에 찬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은 망설이면서 어떻게 남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했기에 선교도 약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운명과 소유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비익조처럼 서로의 날개가 되어

서포선교성당 소공동체



서포선교 성당은 2007년 12월 26일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두 번째로 서포·곤양·봉계 세 공소를 합하여 서포 선교성당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하다 보니 많은 것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고히 만들기 위하여 초대 신부님 이우진 신부님을 비롯한 이한기, 이수호, 김형렬, 김태환, 박태정, 오승수, 임성진 신부님들께서 본당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2021년 1월 22일으로, 오승수 신부님께서 부임하면서 복음화분과장 박상범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을 책임자로 하여 김도점 안젤라 구역분과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구역을 서포성당 3개 구역 5개반, 곤양성당 1개반으로 총 3개 구역 6개반으로 편성하여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



공동체 모임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복음화분과장 박상범 아우구스티노 형제님께서 소공동체 반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간식을 지원하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그 열성으로 인하여 소공동체 모임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음 묵상과 생명의 말씀 정하기와 말씀 살기, 실천 사항을 비롯하여 쉬는 교우 방문, 전화 연락하기, 일손 돕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소공동체 모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소공동체는 혼자서 열심히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비익조처럼 서로의 날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공동체 모임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소공동체 구성원들은 재물을 피우고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특별한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한 곳으로는 제대, 감실, 축성 성유와 다른 성유들의 보관소, 주교의 좌석(주교좌성당의 경우)이나 사제석, 독서대, 세례대, 고해소 등이다.

해설

성당의 중심은 제대다. “신약의 제대는 주님의 십자가이며, 그곳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성사들이 흘러나온다. 성당의 중심인 제대 위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재현된다. 제대는 하느님의 백성이 초대되는 주님의 식탁이기도 하다.”

용어

제대

성당의 제대는 미사를 봉헌하는 제상(祭床)이다. 이 제대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 만찬의 식탁을 상징한다. = 제단(祭壇)

감실

미사 후 남은 성체를 모셔두는 곳.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켜 놓은 등을 성체등이라한다.

축성 성유와 다른 성유

축성 성유 외의 성유는 병자 성유와 예비 신자 성유가 있다.

독서대

미사의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곳이다.

세례대

세례성사를 거행하는 곳이다.

고해소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곳이다.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비를 다양한 전례 전통에 따라 거행하는가?」

그리스도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하므로, 하나의 개별 전례 전통은 그것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풍요로운 신비는 여러 민족과 문화 안에서 아주 다양하게 또 서로를 보완하면서 표현되어 왔다.

해설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하는 전례 전통들은 문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 문화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이 같은 다양한 전례 전통은 서로 보완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용어

전례 전통

보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전례 전통이 있다. 이를 전례 예법이라고도 하는데, 크게는(한국 천주교회가 따르는) 라틴 예법과 동방 교회 예법들이 있다.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